



전북 펜싱, 전국대회서 메달 사냥 성공

전북 펜싱 선수들이 전국대회에서 메달 사냥에 성공했다. 지난 4일 전북도체육회(회장 강장선)에 따르면 최근 충북 보은에서 열린 제26회 김창환배 겸 국가대표 선수 선발대회에서 전북은 금메달 1개와 은메달 1개, 동메달 3개 등 총 5개의 메달을 수확했다. 특히 남자 일반부 에페 종목에서는 전북 선수들이 금·은·동메달을 모두 휩쓸었다. 정재원(전북펜싱협회)은 에페 결승전에서 정병천(익산시청)과 맞붙어 15대12로 승리, 우승을 차지했다. 또한 권영준(익산시청)도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 남자 일반부 사브르에 출전한 정한길(호원대)과 여자 일반부 사브르 단체전에 출전한 익산시청도 각각 값진 동메달을 차지했다. 전북펜싱협회 윤길우 회장은 "전북 펜싱이 전국 최강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정은성기자



농협네트웍스 전북지사, 농촌주택 환경개선공사

농협네트웍스 전북지사(지사장 김태호)는 지난 4일 장계농협(조합장 박점용)과 함께 형편이 어려워 노후주택을 수리하지 못하는 농가를 찾아 도배와 장판교체를 하는 등 농촌주택 환경개선공사를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농협네트웍스에서 연중 실시하는 나눔경영의 일환으로, 지역농협과 함께 취약농가 노후주택의 도배, 장판 교체는 물론 전등 배선공사 등 환경을 개선해 주거 편의를 제공하는 사회공헌 활동이다. 박점용 조합장은 "코로나19 어려운 시기에 생활이 어려운 농업인에게 편의를 제공해 줘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고 마음을 표시했다. /김윤상 기자

초등학생 손 모내기·채소 수확체험

전북농협·도교육청 도내 40개 초등학교에 체험장 조성 마무리

전북농협(본부장 정재호)과 전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은 지난 4월까지 도내 40개 초등학교에 농업 체험장 조성을 마무리하고 지난 4일 전주직업초등학교 교장 김진복) 스톱담 체험장에서 100여명의 학생들이 참여한 가운데 손 모내기와 채소 수확체험을 실시했다. 체험에 참여한 학생들은 눈을 대신한 벼 상자를 활용해 못줄을 잡고 줄에 맞춰 모를 직접 심었으며, 오이·고추·상추 등을 수확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모내기체험에 사용된 모는 전라북도 농업기술원이 개발한 전라북도 신품종 쌀 '십리향미'로 '십리' 밖에서도 향이 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향이 구수하고 쌀알이 작으며 식감이 부드러운 고품질 쌀로 분류된다. 학생들이 이 정성으로 키운 벼는 11월초 수확해 학생들의 가래떡 및 뽕튀기 만들기 체험에 활용할 계획이다. 정재호 본부장은 "허린 학생들이 농업·농촌의 가치와 환경과 전통의 소중함을 스톱담을 통해 몸소 느꼈으면 좋겠다"며 "농작물을 직접 기르고 생육과정의 관찰을 통해 농사짓는 사람들의 마음을 더 가까이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승환 교육감은 "학생 모두는 소중한 미래의 희망이다. 선생님, 친구들과 함께 즐거운 스톱담 체험을 통해 몸과 마음이 건강한 학생으로 성장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스톱담은 전북농협이 전라북도와 전라북도교육청, 전주·익산·군산시와 함께 추진하는 사업으로, 도내 40개 초등학교(전주 20, 익산 12, 군산 8) 내 농업 체험장을 조성해 모종 식재부터 재배, 관리, 수확, 음식 조리가 가능한 체험이 음식이 되는 일련의 과정을 학생들이 직접 체험하는 오감만족 체험프로그램이다. /김윤상 기자

호원대 사회봉사단, 지역농가 일손돕기 나서

호원대학교(총장 강희성) 호원사회봉사단은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3일간에 걸친 상반기 농촌 봉사활동을 오늘 마무리한다고 밝혔다. 호원대 강희성 총장과 학생 및 대학 구성원들이 함께 참여하여 진행된 이번 농촌 봉사활동은 대학 소재 인근 마을에서부터 시작해 모내기, 마늘 수확, 고추대 세우기, 잡초 제거, 페비닐 제거, 콩 심기, 마늘 길 쓰레기 옮기 등 농번기 인력난을 겪고 있는 농가 주민들의 일손을 도왔다. 유양열 군산시 성자마을 이장은 "코로나19로 농촌 일손 돕기에 참여하는 봉사지원자도 없고 농가들의 품앗이도 어려워서 상황에서 호원대학교 총장님과 교직원, 학생들이 단비 내리듯 일손을 보태 주어 참으로 감사하다"고 말했다. 경영학과 4학년 류동훈 학생 대표는 "마스크를 쓰고 도 나르기고 하고 마늘을 수확하면서 구슬땀도 흘렸지만 처음 접해보는 농사일을 돕는거라 서툴고 미흡한 부분이 많았다. 이번 봉사활동을 통해 농산물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가에 대하여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강희성 총장은 "우리 학생들이 매년 농촌 일손 돕기에 참여하여 농촌사회를 이해하고 공동체 의식을 높일 수 있도록 진행하는 봉사활동에, 마을 어른들께서 고사리 같은 손을 보듬어 주셔서 감사한 마음이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봉사 활동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정은성 기자



같은"고 소감을 밝혔다. 강희성 총장은 "우리 학생들이 매년 농촌 일손 돕기에 참여하여 농촌사회를 이해하고 공동체 의식을 높일 수 있도록 진행하는 봉사활동에, 마을 어른들께서 고사리 같은 손을 보듬어 주셔서 감사한 마음이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봉사 활동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정은성 기자

전대 홍정민 대학원생 학문후속세대지원사업 선정



전북대학교 홍정민 대학원생(수의대수의생화학 연구실 박사과정)이 한국연구재단이 지원하는 2021년도 이공분야 학문후속세대지원사업에 최종 선정돼 연구 장려금을 지원받게 되었다. 학문후속세대지원사업은 국내 박사과정 대학원생이 논문 주제와 관련된 창의적, 도전적 아이디어를 주도적, 독립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연구 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선정으로 정 대학원생은 향후 2년간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4,000만원의 연구비를 지원받는다. 이를 통해 광우병을 유발하는 프리온 질병에서 단백질 탈인산화효소인 칼시닌 활성화기전 규명을 통한 신경염증 조절에 관한 연구라는 주제의 과제를 수행할 계획이다. 홍정민 대학원생은 "학문후속세대지원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학문적 도움을 주신 지도교수님과 연구실원들에게 감사드립니다"고 밝혔다. /정은성 기자



새만금개발공사, '호국보훈의 달' 맞아 호국원 참배

새만금개발공사(사장 강팔문 이하 공사) 임직원들은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지난 4일 국립임실호국원을 방문해 현충탑 참배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참배는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고귀한 희생정신과 나라사랑 정신을 기리고자 이뤄졌으며,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위해 강팔문 사장을 비롯한 본부장 3인이 대표로 참여했다. 강 사장은 "순국선열의 희생정신과 넋을 기리고 추모하는 것은 국민으로서 당연한 도리"라며 "국가와 민족을 위해 희생하신 분들을 다시 한번 마음 깊이 새길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평화동 유일정미소, 정성 가득 햇보리쌀 기탁

전주시 평화2동 유일정미소(대표 고의성)는 지난 4일 평화2동주민센터(동장 김현욱)를 찾아 조순카경, 독거노인 등 저소득층에게 전달해 달라면서 직접 농사지은 햇보리쌀 50포(40만 원 상당)를 전달했다. 유일정미소는 6년째 동 주민센터에 백미 또는 보리쌀을 기부해오고 있으며, 올해도 평화2동의 어려운 이웃을 위한 사랑의 햇보리쌀을 기탁했다. 이날 기탁된 백미는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기탁 절차를 통해 평화2동 관내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고의성 대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이웃들이 건강하게 여름을 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저의 작은 나눔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응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현욱 평화2동장은 "매년 어려운 이웃을 위해 물질로 후원해 주신 유일정미소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남원 인월면, 지사보험의체 정기회의

남원시 인월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이은주, 이정일)는 지난 3일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2021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를 위한 지역특화사업 선정 및 지역 복지자원 발굴 등 지역 복지문제 해결을 위한 의견을 나누었다. 회의 결과 지난해 이어 올해도 ▲흥부 사랑 밤상 ▲사랑의 두유지원 사업과 신규로 ▲나누면 돼지 ▲도란도란 연색 사업을 진행하기로 의결했다. 또한 지역에 소외된 복지사각지대 대상자 발굴 및 수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주민에 대한 문제인식 및 지역자원 발굴에 적극 동참하기로 했다. /남원=김기두기자

전주매일

www.jmci.com
등록번호 전북 가00016

2004년 11월 23일 등록(약간)
(주)500912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22 4층 (서노송동)

발행·편집인 조봉성 부회장 김승곤 부사장 김양욱

• 대표전화 288-9700 • 업무국 FAX 288-9703 • 편집국 FAX 288-9704

전주지사 010-6645-4113	중안지사 010-9388-6574	남원지사 632-3886	고창지사 663-6889
삼천지사 010-2338-4791	인후지사 246-6655	김제지사 545-4227	임실지사 010-9922-2725
사선지사 272-9417	송천지사 255-2404	안주지사 246-6655	진안지사 433-3384
호지지사 010-6645-9986	팔복지사 253-6944	남원지사 632-0885	정읍지사 636-5767
	군산지사 010-6739-0338	순창지사 663-0444	장수지사 010-3322-6157
	익산지사 663-9923	부안지사 010-2425-4182	무주지사 010-2300-4253

* 구독료 : 월10,000원, 1부 500원 인쇄인 이상현 **본지는 신문윤리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JJC 지방자치 TV

지역 문화 콘텐츠

JJC 전북

YouTube kakaoTV NAVER TV DOLM NAVER jjctv전북

지방자치가 발전해야 대한민국이 발전합니다!

TV방송채널 kt 올레TV ch.224 Btv ch.285 tv ch.253

JJC 본사: www.jjctv.co.kr tel: 02-2057-0011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109 롯데캐슬프레지던트23F
JJC 전북총국: jjctvjeonbuk.com tel: 063-246-0885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22 승주빌딩5F